



유독가스 대처, 바람 부는 방향의 직각으로 피신을

유독가스 대처 요령

대형화재시 피해자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60% 이상이 화염이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 사망이고, 약 20% 정도만이 소사(燒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대처 요령을 알아본다.

◆ 바람 부는 방향을 가로질러 피하라

유독가스 발생시 급히 위험지역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때 기본 원칙은 바람 부는 방향에 90도 꺾어서 피신하는 것이다. 바람결에 실린 유독가스는 대개 타원형 형태로 확산되는데, 이때 탈출의 최소 거리는 바람의 흐름과 십자를 이루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하철 등 실내 구역에서라면 피신 공간이 한정되므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근처의 비상구를 선택해 빠져나가야 한다.

◆ 엎드려 이동하라

대부분의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20cm 정도는 공기가 남아 있다. 따라서 바닥 가까이 납작 엎드려 자세를 낮춘 뒤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연기가 바닥에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에는 오히려 자세를 낮추는 것이 더 위험하다. 실내에 갇혀 있을 때는 갑자기 문을 열면 안된다. 밀려들어오는 유독가스를 한꺼번에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

승강기는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그 안에 갇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절대 승강기를 타지 말아야 한다. 계단으로 이동할 때는 그쪽으로 연기나 불길의 확산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대피해야 한다.

◆ 젖은 손수건이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려라

유독가스의 흡입을 최대한 늦추려면 손수건 등을 물에 적서 코와 입을 가린 뒤 호흡해야 한다. 손수건이나 휴지를 16겹으로 접어 입은 닫은 채 코에 대고 코호흡만 하면, 거의 방독면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이런 용품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

